

[제 25대] 신용하 회장(2001년 3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최종태 회장님께서 제 연구실에 몇 번 찾아오셔서 제가 간곡하게 거절 한 것도 다 누르시고, 최종태 회장님과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총장께 교수들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으로 봐서 지금 봉사를 하셔야겠다고 해서 몇 차례 후에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추인을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군요. 저는 교육부에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책, 또 현 총장님께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서울대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적대적인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서울대에 우리나라 인재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지원을 하기는커녕 지금 점점 일부 대학들은 벤처기업 회사를 만들어 돈벌이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이게 공부(연구)하는 대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 기초과정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보다는 가정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BK21을 정반대로 보복적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을 가지고 인재를 길러 지식기반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괜히 하는 구두설이지 정책내용과 구호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문 사회 대학은 박사과정이 다 고사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인재를 배양해서 21세기 어떤 인재를 무엇을 가지고 배양하겠습니다. 또 하나 큰 불만은 대부분에 교수님들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70년대 이사 오기 전에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의 약 60%수준이어서 폭발직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준적이 있고 그 후 현재까지 이 모양입니다. 그 후 배려나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의 약 55%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 서울대학에 무엇을 만들고 전부 거짓입니다. 본심은 서울대학은 다 빼고 기능전문대학, 통신대학에 가서 신지식인 육성하는데 신지식인속에 자장면을 잘 비비는 것, 우동을 잘 말아도 되는 신지식인 개념을 가지고 21세기 어떻게 우리나라 조국과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지금 대학 교육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하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수로서 개인이 글을 쓸 때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교수협의회 회장은 또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칼이 있으면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바른 것은 육성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교수협의회 회장은 입밖에 없습니다. 과연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예컨대 서울대 입학시험의 완전히 자율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 엉터리 같은 실정에 맞지 않는 많은 학과들을 고사시키는 것을 폐지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교수들의 비참한 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총장의 여러 가지 독단을 막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회장단과 여러분과 의논하여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의 중간평가와 예산지원은 별개이지 보복을 하는 이런 것은 철저하

게 고쳐져야 합니다. 민선 총장은 앞으로는 교수들에게 대학을 원리원칙에 따르지 않는 전횡의 관례는 깨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관련된 관료제하의 상층부 사람들과 접촉하여 모든 것을 구성되는 임원진과 논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